8.25와 더불어 백승떨치는 불패의 강국

8월 25일은 공화국인민들 누구나 잊지 못해하며 해마다 기념하는 뜻깊은 날이다.

지금으로부터 63년전 바로 이날에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공화국의 혁명무력에 대한 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뜻깊은 예순세번째 8월 25일을 맞는 온 나라 인민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과 민족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군령도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겨보고있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정치가로서의 자신의 혁명활동은 군령도로부터 시작되였다고, 특히 자신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서거하신 다음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군력강화를 위한 사업에 최우선적인 힘을 넣었다고 교시하시였다.

력사에 아로새겨진 8월 25일의 력사적의의를 다시금 되새겨주시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김정일동지께서 1960년 8월 25일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에 령도의 자욱을 새기신것은 선군혁명위업의 계승과 선군령도의 새 출발을 선언한 력사적사변이였다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하신 그날로부터 반세기가 넘는 장구한 기간 인민군부대들에 대한 끊임없는 현지시찰의 길을 걸으시면서 인민군대를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강화하고 선군의 위력으로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오시였다고 감회깊이 말씀하시였다.

아름드리거목에는 뿌리가 있듯이 강대한 공화국의 절대적힘과 필승불패의 기상은 혁명무력강화발전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과 하나로 잇닿아있다.

돌이켜보면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을 찾으신것은 수령님께서 총대로 개척하시고 승리에로 이끌어오신 민족자주위업을 총대로 굳건히 계승완성해나가실 억척불변의 신념과 철석의 의지의 발현이였다.

8월의 무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오랜 시간에 걸쳐 부대장병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어버이수령님께서 부대앞에 제시하신 전투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에 대하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이시다.

인민군대가 자기 수령, 자기 당을 목숨으로 사수할데 대한 구호를 총적과업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문제, 전투정치훈련을 항일유격대식으로 벌려 부대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다질데 대한 문제, 주체적국방공업을 발전시키며 인민군대가 사회주의건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잊지 못할 그날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하신 하나하나의 가르치심은 그대로 나라의 군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데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가르치심이였다.

일찌기 군력은 국력중의 제일국력이며 강력한 총대우에 불패의 강국이 있다는것을 력사의 진리로 새겨안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공화국의 혁명무력에 대한 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그날로부터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인민군부대들을 찾고찾으시며 혁명무력강화의 새 전기를 펼치시고 총대의 위력으로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백승의 한길로 전진시켜오시였다.

그 나날 얼마나 많고많은 눈물겨운 사연들이 사람들의 가슴가슴을 뜨겁게 울려주었던가.

특히 지난 세기 90년대 위대한 장군님께서 걸으신 선군장정의 길을 천만인민은 잊지 못하고있다.

돌이켜보면 얼마나 준엄한 날들이 이 땅에 흘렀던가. 우리 인민이 청천벽력과도 같은 민족의 대국상을 당하고 몸부림칠 때 제국주의자들은 때를 만난듯이 《사회주의의 종말》을 떠들어대고 그 무슨 《3, 3, 3붕괴설》을 집요하게 내돌리며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에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여기에 혹심한 자연재해까지 겹쳐들었다. 사회주의조선의 운명을 두고 세상사람들 누구나 불안과 우려의 눈빛을 보내고있던 그때 위대한 선군령장의 엄숙한 선언이 행성을 흔들었다.

나에게서 그 어떤 변화도 바라지 말라!

그 신념, 그 의지를 안으시고 걸으신 선군장정의 길이였다. 그 누가 내 마음 몰라준대도 희망안고 이 길을 가고가리라는 노래를 마음속으로 부르고부르시며 헤쳐가신 조국수호의 길이였다.

어버이장군님 넘고넘으신 이 나라의 높은 산, 험한 령길들과 헤쳐가신 풍랑사나운 배길에 만사람의 심금을 울려주는 얼마나 많고많은 이야기들이 새겨졌는가.

오늘도 오성산의 칼벼랑길에 서면 지쳐내리는 야전차에 어깨를 대시고 일군들에게 호흡을 같이하면서 힘껏 밀자고 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철령의 높은 산마루에 서면 몸소 운전대를 잡으시고 험한 령길을 넘으시던 그이의 거룩하신 영상이 안겨온다. 선군혁명령도의 길에서 이른새벽 차에 싣고 떠난 쥐밥마저 드실 시간이 없으시여 고스란히 싣고 돌아오신 그밤들은 또 얼마인가.

언제인가 선군장정의 나날들을 돌이켜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정치를 하고 선군의 상징인 오성산이 있어 나라를 지켜냈다고, 오성산이란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간고하였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가 잊혀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총대를 높이 들고나가는한 우리 인민은 자주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떨치며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워 남부럽지 않게 잘살게 될것이며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은 반드시 최후승리를 이룩할것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눈물겨운 선군장정의 길을 되새겨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장군님께서 사나운 눈보라를 헤치며 병사들을 찾아 넘고 오르신 철령과 오성산, 사나운 파도를 헤치며 찾으신 초도를 비롯한 조국수호의 전초선들은 선군장정의 길에 바치신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증견자로 남아있을것이라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진정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한 선군혁명령도가 있어 조선인민군은 무적필승의 혁명강군으로 자라나고 공화국은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 핵보유국으로 그 위용 당당히 떨치며 제국주의자들과의 대결에서 련전련승을 이룩하고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영예롭게 지켜낼수 있었다.

하기에 세계 진보적인류는 《김정일령도자께서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을 현지지도하신 1960년 8월 25일은 사회주의조선의 군력강화에서 력사적리정표로, 사변으로 되는 날이다.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위용떨치는 주체조선의 눈부신 전변과 더불어 이날이 가지는 의의는 더욱 부각되고있다.》,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사회주의위업은 력사의 온갖 도전을 물리치며 힘있게 전진해올수 있었으며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는 굳건히 수호되였다. 그 력사의 로정에 수놓아진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의 불멸의 자욱을 인류는 세월이 흘러도 잊지 못하고있다.》고 하면서 다함없는 칭송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고있다.

빛나는 력사는 위대한 계승이 있어야 영원불멸하다.

오늘 공화국은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세계가 우러르는 위대한 강국으로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치고있다.

《지금도 무적의 열병대오가 굽이쳐간 포석우에 서면 우리 공화국이 지닌 무진막강한 힘에 대한 자부로 심장이 높뛰던 그밤의 환희와 격정이 되살아오릅니다.》

《위대한 강철의 령장을 높이 모시여 이처럼 존엄높은 시대, 참으로 멋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있다는것을 다시금 뜨겁게 절감하였습니다.》

…

이것은 지난 7월 전승 70돐경축 열병식이 진행된 때로부터 오늘까지 이 땅 그 어디서나 울려퍼지고있는 인민의 목소리이다.

이번에 진행된 전승 70돐경축 열병식을 보고 그끝을 알수 없는 공화국무력의 무진막강한 위력앞에 경탄을 금치 못하는 목소리는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도 끊임없이 울려나오고있다.

공화국인민들뿐 아니라 세상사람들 누구나 경탄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는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군력, 그 누구도 넘볼수 없는 절대적힘은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과 업적을 빛나게 계승해나가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전군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군건설의 총적목표로 내세우시고 4대강군화로선을 제시하시여 군력강화의 전성기를 안아오신 위대한 령장의 슬하에서 공화국무력은 국가방위와 사회주의건설의 힘있는 주체로,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를 굳건히 수호하는 무적의 강군으로 위용떨치고있다.

최강의 국가방위력을 축성하지 않고서는 나날이 거세여지는 제국주의의 침략위협과 핵공갈력사를 끝장낼수 없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로운 병진로선을 제시하시고 피어린 개척의 길을 잠시의 지체도 없이, 줄기차게, 굴함없이 헤쳐오시여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을 끝끝내 실현하시였다.

렬강들이 우리 조국과 민족의 리익을 제멋대로 홍정하려들던 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인민이 존엄높은 강대한 나라에서 영원히 전쟁의 참화를 모르고 자자손손 복락을 누릴수 있게 해주신것이야말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쌓아올리신 최상최대의 업적이다.

믿을것은 자기 힘밖에 없다, 존엄과 명예도 강자에게만 있고 혁명위업의 정당성도 이겨야만 중명되며 자위가 있어야 자주도 자립도 있다, 어떤 값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와 목숨을 바쳐서라도, 후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강해야 하고 우선 강해지고봐야 한다, 든든한 반석우에 세운 집에 영원한 만복이 깃들듯이 나라도 강국부터 되여야 무궁번영의 부국도 될수 있다는 철리를 천만인민의 뇌리에 새겨주시며 국력강화의 려정을 걷고걸으시는 정의와 평화의 수호자, 만고절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따라 공화국은 머지않아 천하제일강국으로 존엄과 국위를 누리에 떨칠것이며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무력건설업적은 더욱 찬연히 빛을 뿌릴것이다.

본사기자 유금주

선군의 산악 오성산

◎ 풍랑을 헤쳐, 사선의 고비를 넘어 ◎

뜻깊은 추억

어느해의 첫날에 있은 일이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인민군지휘성원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지나온 선군장정의 나날들을 뜨겁게 추억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가 헤쳐온 준엄한 선군장정의 길을 돌이켜보느라면 초도로 들어갈 때의 일이 제일먼저 떠오르군 한다고, 솔직히 말하면 자신께서는 그날일이 나는줄 알았다고 감회깊이 교시하시였다.

못잊을 그날의 화폭을 되새겨보며 지휘성원들은 저도 모르게 손에 땀을 쥐였다.

집채같은 파도가 기승을 부리는 풍랑속을 뚫고 불사신마냥 질주하는 쾌속정, 배가 뒤집힐듯 너무 흔들려 촬영도 제대로 하지 못한 촬영가들, 섬기슭에서 《최고사령관동지! 오지 마십시오.》라고 눈물을 흘리며 발을 동동 구르는 초도의 병사들…

잠시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지휘성원들에게 선군장정의 길은 초도의 풍랑길과 같은 사선의 고비들의 련속이였다고, 높고 험한 철령과 오성산의 칼벼랑길에도 죽음을 각오하고 단행한 선군장정의 력사가 력력히 어려있다고 교시하시였다.

지휘성원들의 눈굽은 젖어들었다.

최남단의 섬초소도 찾으시여

지금으로부터 11년전 8월중순 미국과 남조선의 호전세력은 내외의 평화지향에 역행하여 대규모북침전쟁연습을 기어이 강행하려고 획책하고있었다.

정세가 다치면 터질듯 최대로 긴장하던 그때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작은 목선을 타시고 서남전선의 최남단 최대열점지역에 위치한 장재도방어대와 무도방어대(당시)에 대한 력사적인 현지시찰을 진행하시였다.

그날 무도방어대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날에 내린 비로 미끄럽고 가파로운 길을 위대한 장군님의 불굴의 공격정신과 희생적인 헌신이 있어 우리 공화국이 고난의 행군을 이겨내고 불패의 강국으로 솟아 빛날수 있게 된것 아니랴.

은 온다는 억척불변의 신념을 간직한 공화국인민들만이 안아올수 있은 자랑찬 승리의 열매들이였다.

오늘도 공화국의 앞길에는 의연히 엄혹한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여있다.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은 최고조에 이르고 세계적인 악성전염병사태와 함께 혹심한 자연재해가 련이어 들이닥치고있다.

그러나 공화국의 인민들은 배심든든하고 기세충천하다. 그것은 또 한분의 절세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고있기때문이다.

돌이켜보면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지난 10여년간 력사에 있어본적이 없는 극난이 겹쳐드는 속에서도 얼마나 거대한 사변과 기적들이 이 땅에 련이어 일어났던가.

국가핵무력완성의 대업의 성취, 려명거리, 화성거리를 비롯하여 온 나라 도처에 수풀처럼 일떠선 인민을 위한 수많은 거창한 창조물들, 황금산, 황금벌, 황금해의 새 력사, 농촌진흥의 새시대…

오늘 우리 공화국은 초대강국의 위용을 떨치며 더욱 부강번영할 래일을 앞당겨오고있다. 인민의 기쁨과 행복의 웃음소리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높아만 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승리는 영원히 조선의것이고 모든 영광과 행복을 맞이하게 될것이다. 이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따라 이 땅우에 천지개벽의 새 력사를 펼쳐오며 이 나라 인민이 가슴마다에 억척불변으로 새긴 신념이다.

지금 인민은 보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 땅우에 안아오시는 부강조국의 찬란한 래일을.

본사기자 주일봉

더 좋은 래일을 마중간다

인민의 행복을 창조하는 군대

최근 TV와 방송으로 울려나오는 노래들가운데는 공화국의 인민들과 인민군군인들이 사랑하고 즐겨 부르는 노래 《병사는 벼이삭 설레이는 소리를 듣네》도 있다.

하늘엔 따사론 해빛 넘치고
땅우엔 금나락 설레이네
농장벌 지나던 병사는
벼이삭 물결치는 소리를 듣네
아 인민의 기쁨이 커가는 소리
병사의 가슴에도 파도쳐오네
…

들을수록 인민군군인들의 가슴마다에 간직된 조국에 대한 사랑, 인민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것인가를 페부로 절감하게 한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군대가 있지만 공화국의 군대처럼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을 위한 일이라면 물과 불속에도 서슴없이 뛰여들어 희생적으로 투쟁하는 참된 인민의 군대는 없다.

언제인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의 모표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정하여주신것의 하나이라고, 우리 인민군대의 모표둘레에다 벼이삭을 새겨야지 다른 나라에서처럼 월계수를 새겨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 교시에는 인민군대가 진정한 인민의 군대가 되여야 한다는 깊은 뜻이 담겨져있었다.

지금으로부터 몇해전 자연재해로부터 인민의 안녕과 생명재산을 지켜낼데 대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명령을 받아안고 한달음에 피해지역으로 달려온것도, 인민의 생명재산을 위해 불속에도 뛰여드는것이 인민군군인들이다.

지난해 방역대전의 나날은 인민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의 정신으로 충만된 인민군대의 참모습을 세상에 다시한번 보여준 나날들이였다.

찾아오는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백명, 그들모두에게 친절하게 치료방법을 알려주며 쉴새없이 약품을 공급한 화선군의들이였다. 그리고 사경에 처한 환자소생을 위해 자기의 피를 수혈해주고 자기 입으로 막힌 숨길을 열어준 소행, 공급된 전투식량을 서슴없이 덜어내여 어려운 세대들에 나누어준 소행을 비롯하여 인민군군의들이 발휘한 소행들은 어느것 하나 인민들을 감동시키지 않는 고유한 체질이며 또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이고 본분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당중앙이 우리 군인들을 태풍피해복구사업에로 조직동원시킨것은 결코 200정보의 피해면적이 많아서가 아니라고 하시면서 싸우는 전선에서 한치의 땅도 적들에게 내여줄수 없듯이 인민생활과 직결된 농업전선에서 단 한평의 땅도 자연의 광란으로부터 빼앗길수 없기에 그 영예로운 임무를 응당 우리 군대에게 맡길것을 결심하였다고, 우리 군대는 인민의 복리를 지키는데서 한치의 양보도 모르는 진정한 인민의 충복이 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이 세상 제일로 인민을 위하고 사랑하시는 위대한 령장을 모시여 인민에게 무한히 충직한 이런 군대와 함께라면 이루지 못할 기적이 없고 이기지 못할 난국이 없다는 인민의 믿음은 날이 갈수록 더욱 열렬하고 굳건해지고있다.

오늘도 인민군군인들은 가요 《병사는 벼이삭 설레이는 소리를 듣네》를 즐겨 부르며 인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한 길에서 조국청사에 빛날 불멸의 위훈과 기적을 창조하고있다.

…

금나락 설레는 들판에서
병사는 감격의 노래부르네
이 세상 누구도 이루지 못한
만풍년 수령님은 안아오셨네
아 황금의 파도여 더욱 설레라
병사는 너를 지켜 충성다하리

리경희